

學校圖書館 機能의 轉換期

李 正 熙
서울北工業高等學校

1. 1978年度를 回顧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별 걱정거리 없이 지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에 와서 실제로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장본인들은 친직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애써오지만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친지들이나 친구들, 또는 동창들이나 가정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가장 매력없는 직종으로 날인을 찍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매력없는 직종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집단체에게 또다시 매력을 못느끼게 된 것이 몇 년 사이의 司書教師란 직종이라고 하면 아니라 크게 반발을 하면서 반문하실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司書教師란 직책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현재 司書教師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만약 부정하는 司書教師가 있다면 그분은 순수하게 司書教師의 임무만을 담당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위인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1968年 2月 26日부터 우리나라 學校圖書館史上 劃期的인 사실로 全國에 33名이란 司書教師의 T/O를 配定하였다. 33名이란 T/O는 우선 ① 建坪이 50坪이상이고 ② 열람석이 100석 이상이며 ③장서가 3,000권이상 이면서 ④ 學生數가 1,200名 이상인 高等學校에 먼저 배치되어 各市道別 인원을 보면 서울 4명, 釜山 3명, 京畿 3명, 江原 2명, 忠北 2명, 忠南 3명, 全北 3명, 全南 4명, 慶北 4명, 慶南 4명, 濟州 1명 등이었다. 이때만해도 司書教師를 지망하는 教師는 너무 많아서 이에 대한 자격강습을 받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았으며 各市道마다 유능한 教師라야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근래 몇년동안에는 오히려 司書教師로 있던 사람이 일반교사로 전직하는 율이 높아졌으며 현재 司書教師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기회만 있으면 전직을 노리고 있음이 뚜렷해졌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

로 全羅南道에서 전직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까지 정확한 숫자를 명시한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실정은 各市道마다 건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비단 全羅南道에만 해당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일단 司書教師가 되면 아무리 유능해도 진로가 차단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學校圖書館은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1968年度에 司書教師 T/O를 配定한 기준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면서도 대개의 경우 司書教師 한사람이 사환이 하는 일로부터 직원의 역할은 물론이며 圖書館長까지 萬能의 역할을 하면서 수업까지 해야한다. 그러면서도 행정당국은 일을 시킬때에는 다른 教師와 동등하게 취급하면서도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을 비롯한 진로문제에 부딪치면 司書教師로 T/O를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는 法的 증거를 제시하곤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學校도 사람이 이룬 집단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따르기 마련이다. 이때만 되면 저마다 출세의 문턱을 향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司書教師는 사환에서부터 館長까지 모든 일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진급할 자리가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노리고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고 무사 태평하기 그지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매년 연말이 되면 본지에는 의례적으로 “學校圖書館의 回顧와 새해의 展望”이란 論題에서 새해의 설계가 제시된다. 戊午年에도 과거를 돌이키면서 새해의 새로운 설계에서 새해에는 그래도 學校圖書館分野에 부분적이거나 어떤 기약도 없이 기대하기 힘든 희망을 안고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말과 같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뻔하지 않았느냐고 할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全國의이고 지속적인 전망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내용인즉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연초에 讀書指導에 관한 지침서가 두툼한 책자로 시달되며 특별활동 시간이나 학급회 시간 혹은 기타 시간에서 주당 1시간씩을 정규 시간에 讀書指導시간으로 할양하라는 지시였다. 이와 병행하여 도서구입비를 각급 학교마다 영달하였다.

그 동안 學校圖書館部會에서 중점적으로 시정책을 행정당국에 요구했던 것중 첫째가 도서관운영비를 실현시킬수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들의 수험료 고지서에 별도 항목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영달해 줄 것과 두번 째로는 司書教師의 진로문제였다. 서울의 경우는 숙원이던 도서구입비가 영달된 셈이다. 그러나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았다.

그것은 영달금의 항목이 도서관운영비가 아니고 도서구입비로써 도서구입 이외에는 절대로 쓸 수 없게 돼서 책을 사도 책을 쫓아 들 서가를 살 수 없어 땅바닥에 쌓아 둘 형편이었으며 구입한 책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용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고통을 해야만 했다.

讀書指導에 있어서도 사무분장면에서부터 운영면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없어서 學校에 따라서는 國語科에서 맡는 데도 있지만 司書教師가 있는 대부분의 學校에서는 圖書館에서 맡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司書教師의 업무는 사환으로 부터 圖書館長까지 상존적인 圖書館管理面의 업무량도 힘든데다가 갑자기 많은 업무량이 늘어나 자갈밭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한 셈이 되었다. 잘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은 따르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司書教師들에게는 戊午年 말씨의 덕을 토틈 본셈이다.

업무량과는 관계 없이 讀書指導는 그 자체의 운영면에서도 문제점은 많았다. 우선 정규시간배정 문제다. 특별활동시간중 한 시간을 讀書指導 시간으로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급별로 시간표를 짜게 되면 1개 학년이 15학급인 경우 주당 45시간이 됨으로 두 사람이 담당해야 할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만약 1,2학년만 한다고 해도 30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만다. 어떤 學校에서는 1,2학년만 두 학급씩 합반 수업으로 시간표를 짜서 司書教師가 담당한 學校도 있다고 들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업시간의 과다로 학급별로 지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교생이 같은 시간에 讀書時間이 되도록 시간표를 짜 놓고 담임이 들어가 지도하는 형식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도 내용은 정해진 책이나 혹은 학생이 원하는 책을 읽도록 하고 교사는 자습지도 형식이 된 것이다. 대개의 경우 월중 讀書指導계획

을 보면 첫째, 둘째 주는 일제독서시간, 셋째 주에는 독후감 쓰기, 마지막 주는 독서발표회, 독후감 발표회 또는 독후감 낭독회, 경우에 따라서는 독서경험 이야기 등으로 일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모처럼 마련한 독서시간이 교육위원회에서 뜻한대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학생들에게는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는 감이 없지 않았다.

평가기준도 마찬가지다. 讀書한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미개발 상태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없다. 기껏해야 독후감을 쓰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국어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하기가 무엇을 지도하는 것이 讀書指導인지 그 概念도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는 마당에 지도할 내용이 확립될리 만무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표준화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 “讀書란 무엇이며,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든가 하는 것도 教育이란 점을 감안했을때 우리나라의 현대 교육에 대한 理論이 外國에서 빌어와 뿌리없는 西歐의인 것에서 우리나라 것으로 制度的 定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처지에 讀書에 대한 理論의인 研究나 현장지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모든 것이 정립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試行錯誤를 거듭하는 한이 있더라도 研究를 계속하여 내것으로 定着시켜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學校圖書館 機能의 轉換期

圖書館界가 다 그러했듯이 學校圖書館分野도 1960年代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1963年 10月 28日에는 法律 第1424號로 圖書館法이 公布되었다. 이보다 2年후인 1965年 3月 26日에는 大統領令 第2086號로 圖書館法施行令이 公布되었다. 몇 있는 형용사를 동원할 필요 없이 1960年代의 전반기는 圖書館人的 榮光이었다.

學校圖書館도 全國에 33名이란 司書教師의 T/O를 配定받았다. (1968年 2月 26日) 圖書館法이 公布된 이후인 1960年代의 도협월보에 寄稿된 論文中 學校圖書館에 關係된 것만을 拔取한 도협월보의 통계를(도협월보 1975年 12月號, 學校圖書館 發展을 위한 圖書館 政策 참고) 보더라도 1964年에서 1966年까지 3年間의 論文은 무려 48편인데 비해 1967年에서 1969年까지의 3年間은 겨우 16편 밖에 안된다. 1960年代와 1970年代를 비교하면 1960年代가 64편인데 비해 1970年代에는 46편이다. 論文의 편수만을 가지고 1960年代와 1970年代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동안의 學校圖書館生活에서 느낀

<별표>

學校圖書館에 關係된 論文 抜取

(도협월보 '75.12월호 p.24의 계속임)

번호	주	제	저	자	자	료	면	수
1	教育法の 基本精神과 司書教師의 問題		蘇	時	重	도협월보75년 4월號		pp.9~11
2	國民學校 어린이의 讀書實態에 관한 調査研究 —어린이회관 회원을 中心으로—		丁	海	晟	" " 9월號		pp.18~21
3	讀書指導를 위한 讀書教科單元の 實際 —中學校 課程을 中心으로—		金	承	煥	" " 9월號		pp.22~28
4	學校圖書館 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李	正	熙	" " 12月號		pp.20~27
5	學校圖書館 藏書中 國語科 教師用 資料의 評價研究		韓	允	玉	76年 3月號		pp.15~21
6	도서관 이용지도 자료의 개발과 활용이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국민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김	동	국	" " 4월號		pp.23~27
7	學校圖書館의 나아갈 길		趙	載	厚	" " 5월號		pp.23~27
8	讀書運動과 圖書館		金	孝	貞	" " 9월號		pp.4~8,
9	讀書行動 問題兒에 대한 讀書相談 要領에 관한 小考		孫	正	彪	" " 9월號		pp.9~15
10	圖書館과 靑少年 讀書教育		梁	泰	鎮	" " 9월號		pp.16~21
11	學校圖書館과 讀書指導의 問題		李	正	熙	" " 9월號		pp.22~25
12	讀書文化와 讀書指導		蘇	時	重	" " 9월號		pp.26~29
13	中學校에서의 讀書指導		朴	泰	臣	" " 10月號		pp.18~21
14	學級文庫를 통한 學習增進形成에 관한 研究		蘇	時	重	" " 11月號		pp.19~23
15	圖書館人的 讀書觀		蘇	時	重	" " 12月號		pp.28~30
16	國民學校 學級擔當教師가 處理하는 圖書館의 業務內容에 관한 考察		李	根	鐵	77年 4月號		pp.2~10
17	韓國의 高等學校 圖書館職員에 관한 研究		李	弘	榮	" " 5월號		pp.2~7
18	教科別 基本資料目錄 設定活用을 통한 高等學校 圖書館의 效率的인 運營方案 研究		李	斗	炯	" " 7,8月號		pp.8~16
19	5歲以上 未就學 어린이를 위한 讀書指導의 必要性		염	윤	영	" " 11月號		pp.26~29
20	1977年 學校圖書館의 回顧		蘇	時	重	" " 12月號		pp.11~13
21	學校圖書館(親我臺)		蘇	時	重	" 78年 3月號		p.2
22	學校圖書館을 통한 中·高等學校 讀書教育方法		金	承	煥	" " 3月號		pp.3~8
23	現代教育和 學校圖書館(「教育課程」의 改定과 學校圖書館)		日本全國學校圖書館協會編 李澤沿 譯			" " 3月號		pp.9~15
24	서울 국제학교 도서관		유	소	영	" " 3月號		pp.18~21
25	司書教師生活 3個年을 回顧하면서		朴	容	料	" " 3月號		pp.22~24
26	兒童讀書指導의 效率의 方法		金	完	起	" " 5월號		pp.7~18
27	켄자스大學의 어린이 讀書 프로그램		Tom Pollared 金泰樹 譯			" " 5월號		pp.19~21
28	中·高等學校 讀書現場 教育方法과 學生들의 讀書生活化		金	承	煥	" " 9월號		pp.7~10
29	來日을 向한 學校圖書館의 座標		趙	基	弘	" " 9월號		pp.11~12
30	韓國 先進教育을 위한 學校圖書館 育成策		李	珪	範	" " 10月號		pp.11~13

것은 1960年代가 희망적이고 발전적이고 고무적인 시기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1970年代 초부터 활기를 잃은 學校圖書館은 1970年代 중반기를 접어들면서부터는 침체를 거듭하여 學校圖書館을 運營管理할 司書教師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中學校에서는 있는 T/O를 반납하여 司書教師는 一般教師로 T/O는 전직되면서 圖書館은 그대로 맡게 되었다. 高等學校圖書館에서도 이와 더불어 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비단 行政的인 조치만이 그렇게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무리라고 본다. 원래 行政이란 필요하면 싫다고 해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반대로 그 機能

能이 다른 것보다 덜 필요하게 되면 약해지기 마련이라면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다시 한번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1970年代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學校圖書館의 機能이 資料의 運營管理面보다 讀書指導를 강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원래 學校圖書館의 運營目標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區分할 수 있다. 소극적인 면이란 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열람자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圖書館法 第3條 第3項에서도 “學校圖書館이라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敎員의 學習, 敎養, 調査研究 및 「리크리에이션」등 그 利用에 供함

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로 規定하였다. 이 條文을 學校圖書館에 대한 定義와 目的을 綜合적으로 明示한 것으로 본다. 圖書館法에서도 소극적인 面만을 말하고 있다. 이외에 적극적인 面이란 學校圖書館의 資料가 學校의 教育課程(Curriculum)의 一部分이 되어야겠으며 學習指導資料의 보조역할이 아니라 직접 學習指導 資料가 되어야겠다. 뿐만 아니라 利用者가 오면 資料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생 속에 파고 들어가 學習의 效果를 올릴 수 있도록 學習 讀書을 지도해야겠다.

1975년에서부터 1978년까지 道協월보에 寄稿된 論文中 學校圖書館과 關係있는 論文만을 抜取하여 그것을 주제별로 분석해보면 총 30편중 讀書指導面을 취급한 것이 15편으로 그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5편도 그 內容에 있어서 圖書館 資料의 運營管理面보다도 讀書指導面이나 圖書館人으로서의 자세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별표 學校圖書館에 關係된 論文 抜取 참조)

그것 뿐만이 아니다. 행정 당국에서도 1978年度에는 讀書指導에 중점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首都教育”에서도 讀書에 대한 特輯을 발행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讀書指導에 대한 공문서만도 1978年度에는 무려 20여건에 가까우며 그 중에는 예전에 없었던 讀書指導에 대한 特別강좌와 讀書指導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시립도서관이 各級 學校圖書館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研究教師制度를 遵從에는 한번도 없었던 讀書指導分科를 따로 설정하여 讀書指導研究教師를 重點은 우리나라 教育史上 특이할만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는 “讀書指導推進狀況表”를 매월 제출하여 지시에서 그치지 않고 各級 學校의 讀書指導狀況을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독서과학회”에서도 1978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日間 讀書指導에 대한 特別강좌를 실시하였다. 특별한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1978년 5월 23일 大光國民學校에서 黃哲秀 副教育監을 비롯한 271個 國民學校校長과 各國民學校圖書館 實務教師 혹은 讀書指導 담당교사 6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讀書指導研究會를 開催하였다. 또한 1978년 9월 29일에는 大光高等學校 대강당에서 李昌鉉 教育監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讀書指導 담당교사가 전원 參席한 가운데 讀書教育 尤功자에 대한 표창과 자모들을 讀書指導 우수 사례에 대한 표창, 또 학생들의 우수 독후감에 대한 시상식이 있는 다음 讀書指導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와 학생들의 독후감발표가 있었다. 특히 자모들의 讀書指導 우수사례

발표는 인상적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78年度에는 그것이 비록 서울특별시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讀書指導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問題點은 있었다. 사무분장면이나 讀書指導 운영면에서의 問題點은 이미 언급하였으니 여기에서는 讀書 그 자체에 대한 問題點을 생각해 볼까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讀書에 대한 理論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讀書에 대한 定義가 확립되지 않은 채 讀書指導를 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무엇에다 目標을 두고 지도할 것인가가 갈팡질팡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讀書指導推進狀況表”에 나열된 항목에 따라 目標을 세운다면 各級 學校에서는 各學年別로 선정도서목록을 정하여 學級文庫를 設置하든지, 일제독서를 하든지 또는 가정독서를 하도록 유도하든지 간에 많은 책을 읽도록 하고 그에 대한 독후감을 쓰게 하여 이를 발표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讀書指導에 대한 概念이라고 단정지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讀書指導란 國語教育에서의 “읽기 지도”이거나 아니면 “文學教育”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읽기 지도”나 “文學教育”이 讀書指導라면 분명히 讀書指導는 國語教育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무분장은 國語科에서 담당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둘 것은 여기서 사무분장의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讀書에 대한 定義를 알아 보자는 것이다.

讀書에 대한 다른 定義는 讀書을 그 目的에 따라 “文學讀書”, “教養讀書”, “學習讀書”, “讀書學習”, “고등독서” 등으로 讀書의 種類를 區分하고 있다. 또한 讀書의 性格과 方法에 따라 “速讀”이니 “精讀”이니 혹은 “音讀”이니 “默讀”이니 “目讀”이니 하는 등으로 區分하기도 한다. 이런식의 定義에 따른 讀書指導에서는 반드시 讀書의 매개물인 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읽히고자한 圖書를 選定하는 작업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讀書論을 理論적으로 봤을 때 “讀書種類區分과 讀書對象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讀書指導 담당교사가 國語科일 수도 있고 司書教師일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도 讀書教育은 “좋은 책을 체제있게 많이 읽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닥에는 글과 의미를 동일하게 보는 우직한 견해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읽는 것이다. <포프>의 말을 빌리면 의미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은 “뜻도 모르고 책만 가득찬 들대가리”란 표현을 했다. 만일 “글자 읽기 능력”이나 “言語力”과 “어휘력” 또는 “知識”만 갖

추면 讀書力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상의 能力을 同一하게 갖춘 개개인이나 집단끼리 비교할 때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能力이나 수준이 차이가 없어야 할터인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研究의 결과 “讀書力을 글이란 표면구조를 매체로 내용의 구조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뇌의 능동적인 능력”이라고 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의 반응을 뇌 속의 讀書반응과 겉으로 나타나는 눈동자 움직임, 글자의 발음, 반복 읽기, 속도 등의 관찰할 수 있는 讀書반응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들 讀書반응을 종합하여 讀書行動이라 한다면 讀書教育은 讀書를 하나의 過程(process)이라고 보고 뇌 속의 반응에 대한 조건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제반 조건들을 개선하여 讀書行動에 변화를 일으켜 주는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理論을 “讀書行動과 讀書過程論”이라고 한다. 이상의 “讀書過程論”에서는 또 다시 知的 過程과 情意的 過程으로 區分하고 知的過程에서는 다시 “豫見” “判讀” “把持” 등의 過程으로 區分하며 “判讀過程을 또다시 “식별” “확인” “이해”하는 過程으로 區分한다. 情意的 過程에서는 讀書態度, 讀書趣味, 讀書價値觀 등으로 區分한다. 이러한 제반 過程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讀書指導란 것이다. 이 경우의 讀書指導 담당교사는 새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學校教育에서의 讀書指導를 人格修養의 한 수단과 方法으로써 위인전이나 고전을 읽게 하여 人間변화의 過程으로 생각하는 “讀書의 價値論”도 생각 안할 수 없으며 讀書를 독서하는 태도나 過程 또는 그 경과에는 상관없이 정서활동 등의 어떤 目的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結果만을 확인하려는 “目的論과 結果論”도 들 수 있다.

이 밖에 言語學者들이 말하는 音讀論같은 “言語中心論”, 의미의 이해정도를 측정하려는 心理學者 中心의 “讀書思考論”, 言語사용법이나 구조를論하는 言語 心理學者 中心의 “言語心理中心論” 기타 專門知識을 총동원하여 眞理에 가까운 概念을 構成하려는 論書論 등 讀書에 관한 定義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면서 복합적이 概念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讀書指導의 內容도 단순하게 부분적인 지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인 요인을 지도함이 讀書教育이란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讀書指導教師의 자질도 ① 言語學 ② 어휘력, 책의 이야기 구조등의 수준 파악 능력 ③ 읽기에 대한 자신의 체험이나 깨우침 ④ 文學에 대한 知識 ⑤ 教育學 ⑥ 心理學 ⑦ 讀書에 대한 理論 ⑧ 圖書館學에 대한 理論, 이외에도 ⑨ 文學에 대한 감상력, 글짓기 능력 등 萬能의 사람이 돼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萬能의 機能을 學校圖書館에 요구해옴은 바

로 學校圖書館을 담당하고 있는 司書教師에게 그 자질을 갖추란 말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讀書教育이 되고 있는 참된 뜻을 이룰 수 없으며 그 결과의 형식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3. 앞으로의 問題

다른 館種과는 달리 學校圖書館이 살아나는 길은 당국의 行政의 뒷받침도 중요하고 圖書館法의 개정문제도 중요하고 司書教師의 진로문제도 중요하고 圖書館 운영비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機能의 再構成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함은 學校圖書館에 몸담고 있는 司書教師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 機能이 어떤 것이나 하는 問題는 미지수로 남겨 두면서 그 누구도 손을 못대고 있다.

어렴풋이나마 讀書指導란 말은 오래동안 圖書館運營과 병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論한 概念과는 달리 圖書館 利用지도를 비롯하여 良書의 선별방법, 良書의 목록 게시 배부 등의 讀書 資料 선정 분석 소개와 독후감 쓰는 요령 독서 위생지도 등이었으며 좀더 잘 하는 圖書館은 독서토론회, 독서발표회, 독후감 발표회 등이 있다. 이런 것은 위에서 소개한 讀書教育의 概念과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지도 內容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는 問題도 된다. 우리 司書教師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이나 社會가, 혹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수긍할 것인지도 問題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는 더 노력하자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존적인 일감만 해도 司書教師 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의 能力은 한도가 있어서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 단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再構成하기 위해서는 먼저 職員이 再조정돼야 하리라고 본다. 職員의 재조정은 인원문제도 있지만 현재 司書教師의 진로문제와 관계 있는 재교육이 전술한 讀書指導 教師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절실하다고 본다. 勿論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讀書教育에 대한 理論의 바탕이 問題이기는 하지만 試行錯誤를 두려워 말고 研究와 실행을 거듭하면서 發展해야 되리라고 본다.

만약에 學校圖書館은 기존적인 機能만을 그대로 고수하고 讀書指導教師를 따로 獨立시키든지 아니면 國語科나 教育學을 전공한 사람이 하게 한다면 學校圖書館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讀書指導 概念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資料保存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글은 讀書教育이 全國의이고 지속적으로 發展할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타당할 뿐이지 그때 그때 기본나는 대로 일시적인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지면에 정력을 기우린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